

광주도철건설본부
‘단명 본부장’ 논란
4년새 6번...평균 7개월

‘광주시민의 발’인 도시철도 건설을 총괄하는 광주도시철도 건설본부의 본부장 평균 임기가 7개월에 불과해 ‘단명(短命) 본부장’이라는 오명을 받고 있다. 12일 광주도시철도건설본부가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책임질 주무부서의 장인 도시철도 건설본부장의 임기가 2014년 이후 평균 7개월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부장 교체만 6차례나 이뤄졌다.

송모 본부장의 경우 2014년 1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6개월, 박모 본부장은 2014년 8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10개월, 뒤이은 문모 본부장은 2015년 7월부터 2016년 7월까지 11개월간 본부장직을 수행했다. 이어 이모 본부장은 2017년 2월부터 같은 해 6월까지 5개월, 장모 본부장은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간 재직했고, 박남주 현 본부장은 올해 1월부터 9개월째 본부장으로 근무 중이다. 최근 4년새 1년 이상 근무한 본부장이 전무한 실정이다.

또한 전 본부장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본부장직을 마치고 마자 퇴임하거나 퇴임을 앞두고 본부장직에 올라 ‘퇴임자 코스’라는 꼬리표를 붙여왔다.

도시철도건설본부는 “저비용 고효율 명품 도시철도 건설을 추진하기 위해 관리과, 공사계획과, 차량설비과, 신호통신과를 뒤 도시철도 2호선 건설업무의 총괄 책임을 맡고 있는 부서로, 본부장의 월평균 급여는 871만원에 이른다.

시의회 산하인 김점기(남구 2) 의원은 12일 “본부장이 업무 파악도 제대로 하기 전에 인사 이동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어 도시철도 2호선 건설에 대한 추진 의지를 의심할 수 밖에 없다”며 “줄줄이 단명하는 상황에 대해서 시민들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느냐고 따져 물을 뒤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서은홍 기자



전남 오토바이 사고 사망자 10명 중 4명 안전모 미착용

최근 3년 사망자 중 안전모 착용률 42%

전남 지역에서 이륜차(오토바이) 교통사고가 매년 800여 건 이상 발생하는 가운데 사망자 10명 중 4명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오토바이 탑승자의 의식개선과 범칙금 인상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1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2015~2017년) 동안 전남 지역에서 발생한 오토바이 교통사고는 2015년 872건·2016년 893건·지난해 853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오토바이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5년 58명·2016년 59명·지난해 44명으로 조사됐다.

전남 지역 최근 3년 동안 발생한 오토바이 교통사고 사망자 중 안전모 착용률은 42%에 불과했다.

2015년에는 68명의 사망자 가운데 30명만이 안전모를 착용, 44.1%의 착용률을 나타냈다. 2016년과 지

난해에도 오토바이 교통사고 사망자의 안전모 착용률은 각각 41.1%·41.2%에 그쳤다.

사고 당시 안전모 착용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까지 포함하면 착용률은 더욱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도 안전모를 쓰지 않은 오토바이 탑승자가 교통사고로 숨졌다.

지난 2일 오전 4시17분께 순천시 한 평도 2차선 도로에서 A(32) 씨의 오토바이가 뒤따르던 승용차와 추돌해, 우즈베키스탄인 탑승자 3명이 모두 숨졌다.

사고 당시 주변 CCTV 영상을 통해 뒷좌석 승승자 2명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015년 전남에서만 오토바이 탑승자의 안전모 미착용 적발건수는 4015건에 이르렀다. 2016년과 지난해에는 각각 3910건과 2022건으로

크게 줄었지만 오토바이 안전모 착용이 문화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탑승자 대부분이 휴대·착용 불편함 등을 이유로 안전모를 쓰지 않고 있으며, 승승자의 안전모를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또 고정 끈을 매지 않는 등 단속을 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착용도 잇따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도로교통법 50조 3항에 따르면 이륜차 운전자와 동승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운행해야 한다. 이를 어긴 탑승자는 범칙금 2만원 처분을 받는다.

박정관 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 교수는 “안전모를 쓴 오토바이 운전자는 미착용 운전자보다 최대 4배 이상 생존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오토바이 탑승자의 인식 개선과 함께 범칙금을 상향하는 방안도 고려해, 안전모 착용률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환 기자



추수 앞둔 들녘...자전거와 농부 12일 오후 경남 남해군 창선면 인근 들녘에서 한 농부가 추수를 앞둔 논에서 피를 밟고 있다.

경찰, 연말까지 ‘가짜뉴스’ 특별단속

경찰이 연말까지 메르스 괴담 등 가짜뉴스를 포함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강력 단속한다.

경찰청은 사이버사과·형사과 등 4개 과가 협업하는 ‘허위사실 유포 사범 특별 단속 추진제’를 사이버안전국에 구성하고 연말까지 특

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방청 사이버수사대에는 전담수사팀을 두고 가짜뉴스 관련 첩보 수집 및 수사를 전담토록 할 계획이다.

이 같은 경찰의 대응은 메르스 환자 발생, 국민연금 북한 주민 지

급설 등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안과 관련해 유튜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행위가 급증한 데 따른 조치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가짜뉴스에 대한 악의적·계획적인 유포 행위와 일명 ‘지리사’라고 불리는 사설정보지를 통한 오프라인상 가짜뉴스 배포 행위 모두 수사 대상이다.

뉴스스

美 오리건주서 실종등산객 시신 발견

미 오리건주에서 등산도중 실종됐다가 10일(현지시간) 시신이 발견된 등산객 다이애나 보버(55)는 쿠가(cougar)란 이름으로 불리는 북미산 야생 사자에게 피살된 것으로 밝혀졌다.

미 북서부 태평양연안에 있는 오리건 주에서 쿠가에게 목숨을 잃은 인명피해는 올 해에만 벌써 두번째이다. 보버의 시신은 주도 포틀랜드에서 남동쪽으로 65km 떨어진 웰치스 부근의 후드산 국립수목원 내부 등산로에서 벗어난 곳에서 발견되었다. 그 지점은 피해자의 차가 지난 주에 발견된 곳으로부터 몇 마일이나 떨어진 곳이다.

열성적인 등산가이며 후드산과 롤라비이강 일대의 골짜기로 자주 등산을 다녔던 보버는 지난 8월29일 이후 가족이나 친구들과 연락이 끊겼다. 이에 따라 이달 7일 실종신고가 접수되었지만, 아직 어디에서 등산을 시작했는지 출발점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클라캐미스 카운티 보안관 사무실의 브라이언 켈슨 경찰관은 말했다.

그녀의 시신에는 쿠가의 공격과 일치하는 상처들이 많았으며, 검사관은 다른 원인으로 사망한 뒤에 사자의 공격을 당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현장에서 채취한 DNA로 더 정밀한 감식이 진행 중이다.

오리건주 당국은 이 지역 교육구 각급 학교에 사자의 위험을 알리고, 다른 등산객들에게도 문제의 지역을 피하도록 권하고 있다.

오리건주에서 쿠가는 농촌이나 산악지대에서 흔히 관찰되는 동물이지만 이번처럼 사람을 공격해서 죽이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 산악사자, 또는 푸마로도 불리는 오리건주의 쿠가는 현재 600마리가 서식중이며 해마다 400건 정도의 부상신고가 들어오고 있다고 경찰은 말했다.

지난 10년동안 이 곳에서 살해된 쿠가는 약 20마리 정도로 대개는 보버의 시신이 발견된 곳 부근에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5월에는 워싱턴주 시애틀 동쪽의 한 등산로에서도 산악사자를 타던 한 명이 쿠가의 공격으로 사망했는데, 이는 워싱턴주에서 94년만에 일어난 인명피해였다.

印 버스 계곡 추락 55명 사망 33명 부상

인도 남부 텔랑가나 주에서 11일 버스가 계곡으로 추락해 어린이 4명을 포함해 55명이 숨지고 최소 33명이 부상했다.

이날 사고는 안지네야 스와미 힌두사원에서 순례자들을 가득 태운 버스가 구름지대를 지나던 중 다른 버스와 충돌을 피하려다가 도로를 이탈해 계곡 아래로 추락하면서 일어났다고 마데레 레디 교통장관은 말했다.

사고 버스는 정원을 초과해 많은 승객들을 태우고 있었다.

안지네야 스와미 사원은 힌두교의 하누만 신을 모시는 사원이며 11일은 하누만 신에게 기도를 드리면 상서로운 일이 일어난다고 알려진 날이다. 사고가 나자 행인들이 달려가 버스에서 사망자 시신과 부상자를 끌어내 병원으로 옮기도록 했다.

인도 관리들은 정확한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美, 허리케인 플로렌스로 240만명 정전 예상

무려 240만명에 달하는 미국 동부 지역 주민들이 주말에 이 곳을 강타할 허리케인 플로렌스로 인한 정전 피해를 입게 되며, 그 시기도 상당히 길 것으로 미시간 대학 기상학자들이 예고하고 있다.

미시간대 기상예보팀은 이번 정전 피해가 2012년에 인구가 더 많은 뉴저지를 강타했을 때의 정전사태 보다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주민에게 닥칠 것으로 11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미시간대 공과대학의 세스 기키마 교수는 플로렌스가 예상 진로보다 더 북쪽으로 움직이거나 오래 머물 경우엔 홍수 등으로 정전 피해지역도 더 넓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예측은 미 국립기상청의 허리케인 진로와 풍속 등에 관한 예보를 기초로 계산한 것이다.

이 지역 전력회사인 듀크 에너지 대변인은 “통신 전력 회사가 정전 사태 예보하지는 않지만 이 정도 위력의 허리케인이면 상당히 광범위한 정전 피해가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듀크사는 플로리다와 중서부지역에서 2000명의 인원을 이곳으로 차출해서 남 북 캐롤라이나주에 4600명의 특별 보수를 발족시켰다고 말했다. 이 회사는 남 북 캐롤라이나주에 약 400만 세대의 고객들을 가지고 있다.

한 편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정부는 11일자로 해안지대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렸다. 또 동반할 홍수로 지하수 우물이 침수될 경우 식수로 부적합할 것을 예고하고, 주민들에게 세균검사실시와 생수 비축 등을 권고했다.

모두, 안녕하세요?

우리 민력은요... 자태지료쪽에 있습니다.

처음엔 많이 놀랐지만, 영유아건강검진으로 알게 돼서 부모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 덕분에 안녕이란 말을 다시 돌아봅니다.

대한민국 부모님들, 다들 안녕하시죠?

탄생의 순간부터 평생 동안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함께 합니다

국가건강검진

영유아건강검진은 생후 4개월부터 7개월까지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검진기관이 혼잡하오니, 미리 미리 검진 받으세요.

일반 건강검진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구강 검진

암 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보건복지부 | 서울특별시 | [전화번호: 129]

국민건강보험 | 서울특별시 | [전화번호: 1577-1000]